



고유가시대 달라진 풍속도

지하철·버스 짝차고 외식·쇼핑 문화 실종

연일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급등으로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반면 나들이 문화가 실종되면서 음식점·위락시설 등이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
또 광주시를 비롯한 공공 기관은 '에너지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는 가 하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생활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3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 동안 지하철 1일 평균 승객 수는 4만8천8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천979명에 비해 22.2% 증가했다. 자가용 운행은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건강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실속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시내버스 1일 평균 이용객은 45만2천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만8천195명에 비해 무려 1만4천418명이 늘었다. 마을 버스 이용객의 경우 이용객이 지난해 4월 7천54명이었으나, 지난 4월 9천651명으로 36.8%(2천597명)나 급증했다.

고유가는 시민들의 나들이·외식 자체로 이어져 유원지나 음식점 등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이 주로 찾는 우치공원과 위락시설 등의 이용객 발길은 뜸해지고, 외식과 나들이를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폐업하는 식당도 크게 늘고 있다. 우치공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D)와 고유가 여파가 겹치면서 하루 평균 입장객이 전년에 비해 3천명가량 감소했으며,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도 하루평균 이용객이 700~800명이었으나 350명선

에 그치고 있다. 한국음식업 중앙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폐업한 업체수는 448개로 373개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다. 광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치동물원의 경우 AI와 고유가 된서리를 맞으면서 이종고를 겪고 있다"고 고소연했다.

놀이공원 이용객 줄어
이로 인해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공서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운동도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달 15~31일 '탄소은행 전용카드' 제도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천972가구가 접수했다. 탄소은행 전용카드는 각 가정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 광주은행과 협약에 따라 발행한 전용카드에 탄소포인트를 적립, 물품구입대금 결제 또는 현금으로 돌려 주는 제도다. 시는 또 자체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 청사 내 층별 냉·난방 온도와 조명 등 에너지를 관리하는 '에너지 지킴이'를 살·과별로 지정해 운영하고 활동이 우수한 지킴이에게 에너지 절약 관련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직원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김광훈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유가 때문이 아니라 경성시에 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보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고기 재협상” 전남도의원들 식발 3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청와대 인근에서 여성인 고송자(59·민주노동당 비례·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 의원 등 전남도의회 의원 6명이 최고기 장관 고시 철회 및 재협상을 촉구하며 식발을 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전남도의원 37명은 '최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고, 청와대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3일간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美에 '30개월 이상' 수출중단 요청

정부, 답신 올 때까지 쇠고기 고시·검역 중단

정부는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미국 측의 답변이 올 때까지 고시와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4·5·7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면서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으며 따라서 당연히 검역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이 걱정하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의 적정성 문제는 우리의 주권적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여권 관계자들도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여 수입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는 한편 미국 측과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권의 대책이 야당 측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그대로 두되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에 한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금지하는 '자율규제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국이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기자들에게 "지난 4월에 이뤄진 한·미 간 쇠고기협상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마련됐다"면서 "재협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국의 요구에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F1 특별법 18대 국회서 재추진”

한나라 임태희 의원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F1(포클러원) 지원 특별법 제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측 관계자는 3일 "17대 국회에서 F1특별법이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무관심과 여야 협상과정에서의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되는 바람에 이번 국회에서 폐기됐다"면서 "18대 국회가 공식 개원하면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F1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0년 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관련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미 전남도와 상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었으며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일반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 올라 F1 특별법 국회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여야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F1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1년 5개월여의 진통 끝에 무산된 뒤 17대 국회폐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망학원 '성원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888-8426 / 062-222-8111

062-2200-5000